

## 물 절약 수기 사례

송윤순 (광주광역시 주부)

### 1. 동기

1986년 구청 복지과 소속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주부로서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틈틈이 봉사활동을 하며 생활 하던중 1994년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되었다.

복지와 환경단체에서 활동을 하면서 주부들의 많은 동참이 항상 아쉬운 터에 좁은 공간에세 많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가장 반갑고 즐거운 일이었다.

입주 처음에는 주민들과의 친교를 형성하기 위해 같이 접촉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으며 이런 만남 속에서 어떻게 하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속에서 6개월만에 아파트 부녀회를 조직하게 되었다.

아파트에는 자치관리위원회, 노인회, 부녀회라는 조직이 움직여 아파트 살림을 이끌어 가고 있는데 작은 조직이 모여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자고 약속을 하고 먼저 부녀회 회칙을 만들어 아파트 입주주민이면 누구나 부녀회원이라는 자긍심을 심어주기 위해 월 회비 500원을 아파트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기로 하였으며, 주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 아파트 주변환경 조성, 이웃간에 만남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민단합대회 노인 효도관광 등 여러 분야의 봉사활동을 하기로 하는 회칙을 만들었다.

맨 처음 주부들이 손쉽게 할 수 있는 생활환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첫 주민단합대회를 쓰레기 매립장을 경유하는 행사를 했다. 130명의 주부들을 쓰레기 매립장에 하차시키고 매립장 관리인으로부터 음식

물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악취와 추출물에 의한 강물 오염의 심각성, 또는 10년 후 매립장 선정과정의 문제점들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차안에서 그 동안 환경단체에서 배웠던 물 오염의 심각성과 쓰레기 처리 문제들을 내가 아는 대로 열심히 설명하였더니 이구동성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 우리가 해결 하자”며 지독한 냄새는 맡았지만 그래도 배운 것이 많으면서 모두가 보람을 느꼈다.

쓰레기 매립장 견학 후 영산강 물 살리기 운동으로 맨 처음 폐식용유 수집을 시작하였다. 폐식용유 오염 심각성을 안내문으로 만들어 엘리베이터와 입구 안내판에 부착시켜 주민 모두가 읽고 공감하며 수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주 방송을 통해 홍보하여 폐식용유 수집에 동참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결과 1년에 72리터를 모아 환경단체가 운영하는 공장에 가져가 재생비누를 만들어 각 세대에 나누어 주었더니 버리면 환경오염 모으면 자원이 된다는 것에 주민들은 큰 긍지를 갖고 지금도 열심히 모으고 있으며, 이런 사례로 북구청 환경과 재활용계와 연계 구 전체 아파트에서 수집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1997년 3월 주부 봉사단 60명을 구성 북구청 환경과와 연결하여 “무등산계곡 맑은물 되살리기”라는 환경단체를 만들어 무등산 원효사 계곡 청소를 2년간 하면서 주부들과 함께 등산도 하고 쓰레기도 주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았다. 그러면서 주민이 함께 하는 공동체의 삶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부녀회 형성과 동시에 매주 화요일이면 양계장과 연계하여 그날 낳은 계란을 주민들에게 공급해주고 있으며,

- 환경단체와 연결하여 무공해비누 판매
- 비인가 시설과 노인정 김장 담아 주기
- 동지 날 주민 동지잔치
- 아,나,바,다 운동
- 농산물 직거래 장터

등으로 주민 서로간 협조체제가 구축되는 계기가 되었다.

## 2. 물 절약 실천 사례

이런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동안 환경단체와 복지단체에서 활동하였던 경험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물 절약 운동에 앞장설 수 있었던 것은 환경단체에서 교수님들과 “10년 후 물 부족을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라는 주제 토론이 나에게는 물 절약을 할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부녀회 구성 1년 후 구청 “아 나 바 다” 전시장에서 번기에 설치된 절수기를 보고 바로 이것을 우리 아파트에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긴급 부녀회를 소집하였다.

비용은 매월 각 세대에서 500원씩 납부한 회비로 충당하기로 하고 절수기 한 개당 5,000원씩 전 세대 400개를 200만원에 달기로 하였다. 물론 얼마의 물을 절약할 수 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설치를 해야 되는가 여러 의견도 많았지만 번기물통의 물을 1/4을 절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공사를 시작하였다.

조금이라도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아파트 설비직원과 부녀회원들의 간담부름으로 3월에 시작하여 4월 10일에 설치를 완료하고 나는 초조한 마음으로 4월 18일 아파트 전 세대 수도 검침을 기준으로 매달 관리실 직원과 점검을 하였다.

3개월 후 매달 500여톤 이상의 물이

절약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절수기 설치 1년 전 물 사용량과 설치 후 1년간의 물 사용량을 비교하여 비교표를 만들었다.

절수기 설치전 사용량은 110,649톤, 설치후 사용량은 102,315톤으로 1년간 총 8,334톤을 절약했으며 400세대에서 월 평균 649톤을 절약할 수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그 당시 연간 4,875,390원(톤당 585원)이 절약되었으며, 세대당 월 1.8톤(585원)씩 절약되었다.

200만원 투자에 5년이면 약 41,670톤의 물 금액으로는 약 20,315,750원이라는 거금을 절약할 수 있었다. 이것을 주민들이 알기 쉽게 표를 만들어 엘리베이터와 안내판에 알려 비록 한 세대에 1개월에 1.8톤 585원의 절약이 눈에 크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전세대의 절약은 이렇게 커다란 결과를 가져왔다고 알려 주었다. 이런 절약 운동을 우리 아파트에서만 하기에는

수도물 사용량 비교표 (1997. 4. 16 ~ 1999. 4. 15)

문흥 라인동산 아파트

	절수기 설치전 사용량(t) (’97.4.16 - ’98.4.15)	절수기 설치후 사용량(t) (’98.4.16 - ’99.4.15)	비 고
’97. 5	8,892	8,983	+91
6	9,782	8,271	-1,511
7	10,526	9,071	-1,455
8	11,574	10,310	-1,264
9	11,048	8,975	-2,073
10	8,551	8,585	+34
11	9,489	8,653	-836
12	8,239	7,817	-422
’98. 1	8,333	7,857	-476
2	8,286	8,057	-229
3	7,554	7,854	+300
4	8,375	7,882	-493
계	110,649	102,315	8334t 절약 (8,334t * 585원 = 년4,875,390원)
월평균	9,220	8,526	694t 절약 세대당 월 1.8t 절약

※ 21~30t, t당가 : 585원(상수도 420원 + 하수도 165원)

---

너무 아쉬워 물 절약 자료를 갖고 구청 환경과를 찾아가 주민 모두가 참여 할 수 있도록 홍보도 하였다.

### 3. 마무리

그 이후 광주 광역시 상수도 사업본부와 환경단체의 토론에서 물 절약 사례발표를 하게 되었으며, 이런 일들이 주민들을 똘똘 뭉칠 수 있는 힘이 되었다. 부녀회장이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2년간 맡았던 회장직을 물러주고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환경과 복지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다.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부녀회원들에게 감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도 빠지 않고 연결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동안 봉사활동의 경험으로 2001년 9월 17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단법인 한울복지회를 설립하여 우리 사회에 소외되고 어렵게 살아가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

특히 오십이 갓 넘은 나이에 낮에는 어르신들과, 밤에는 자식 같은 학생 동료들과 복지학을 공부해 자랑스런 복지인이 되겠다는 야무진 꿈을 안고 오늘도 내일을 위해 열심히 살고 있다. 🍎